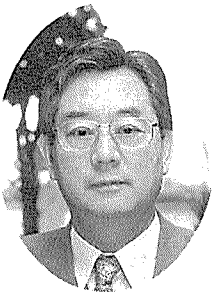


無所不爲 OPEC 시대 다시 오는가



이 성 원
〈 한국석유공사 부사장 〉

저유가국면이 일시에
고유가국면으로
급반전되게 된
일차적 원인은 OPEC의
생산감축 때문이다

지 난 한 해 동안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던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현저한 급변동성을 노정하고 있다. 불과 8개월여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올 2월까지만 해도 중동산 Dubai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9달러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다. 실제로 '98년 내내 지속되던 유가 폭락세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유가가 5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마저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3월에 있는 산유국 감산을 계기로 상황은 크게 반전되었다. Dubai 유가는 2월 평균 10달러 수준에서 최근 23달러 선마저 돌파하는 등 불과 6개월새에 무려 2배 이상 치솟았다. 최근에는 석유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까지 닥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7년말부터 연초까지 1년넘게 지속되던 저유가국면이 이렇듯 일시에 고유가국면으로 급반전되게 된 일차적 원인은 주지하다시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감축 때문이다.

물론 아시아와 미주 등지의 수요 증가가 뒷받침되고 있고, 지난 해의 저유가 여파로 생산 투자가 위축되어 OPEC 이외 산유국들의 생산 증가세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이 유가 강세에 일조하고는 있으나, 무엇보다도 OPEC이 명백히 주도권을 잡고 급등장세를 이끌어가는 형국이다.

마치 생산 카르텔로서의 위용을 갖춰 다시금 존재 증명이라도 나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도 단단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는 한갓 지나간 과거의 산물로 인식되던 OPEC이 다시금 석유시장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OPEC 시대'는 다시 오는가.

OPEC의 부상과 극적인 유가 반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 3월 OPEC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석유시장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다. OPEC은 3월 총회에서 기존 감산목표에 더해 향후 1년간 170만b/d를 추가 감산키로 합의했다. 즉, '98년에 OPEC이 합의한 바 있는 감산량 260만b/d를 포함하면 '98년 2월 산유량에서 총 430만b/d를 감산키로 한 셈이다. 멕시코와 노르웨이 등 일부 비OPEC 산유국도 감산에 동참, 산유국 총 감산 목표규모는 511만b/d에 달한다.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상승세로 반전된 유가는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초강세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석유시장에서는 과거 행태로 보아 OPEC의 감산 준수율이 보잘 것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에는 90%선을 상회할 정도로 감산 실적이 꾸준히 제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듯 OPEC의 예상을 뒤엎는 결속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한편 상당기간 이러한 감산 결속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은 OPEC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사실 작년의 유가 대폭락기 때에조차 감산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던 OPEC였다. 그러나, 이제는 굳건한 감산 결속력을 보이면서 과거의 '믿을 수 없는 OPEC'이 아닌 '시장의 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70년대의 화려한 전성기 시절을 제외하고는 이후 계속하여 OPEC은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에 따른 영향력 저하와 생산 카르텔로서의 자체적인 응집력 약화, 그리고 '80년대 이후 석유시장 구조자체가 과거 판매자 위주 시장에서 수급 위주의 체제로 변모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당초 OPEC은 회원국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 석유정책의 추진을 표방하여 설립된 카르텔이었으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생산 카르텔의 절대적 필요조건인 결속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그 위상 또한 크게 격하되어왔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에콰도르와 가봉이 탈퇴하는가 하면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 같은 일부 비중동 회원국들의 탈퇴도 시간문제일뿐이라는 예상도 심심찮게 나오는 등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만성적으로 쿼터 위반을 일삼아 OPEC 생산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됨으로써 'OPEC의 시대는 끝났다(OPEC의 終焉)'느니 'OPEC은 석유시장의 종이 호랑이'니 하는 조롱섞인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OPEC이 금년에는 심기일전,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으

그런 OPEC이 금년에는
심기일전, 어느 때보다
도 강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OPEC 주도국 사우디의 유가방어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과거와는 달리 쿼터위반의 대명사였던 베네수엘라가 감산합의를 거의 100% 지키고 있는 점은 OPEC의 변모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들 주도 회원국은 물론 나머지 회원국들도 자칫 방심하다가 지난 '98년과 같은 뼈아픈 유가 폭락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굳은 편이다.

향후 OPEC의 행보와 그 시사점

현 시점에서 OPEC은 조금씩 감산정책을 완화할 경우 유가 폭락이 재연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당분간은 감산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OPEC의 동향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내년 3월까지의 현재의 타이트한 감산정책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는 곧 현 유가 강세가 쉽게 누그러질 성질이 아님을 시사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내년 3월 이후에는 OPEC 이외 산유국들의 증산이라든지 OPEC내 일부 회원국들의 증산, 그리고 석유소비 둔화 등과 같이 고유가상황 지속에 따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 OPEC의 동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 수준에서의 유가 안정화를 바라는 기본 정책상 유가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OPEC의 시장 장악력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OPEC 자신이 큰 폭의 유가 하락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OPEC으로서는 내심 유가가 Brent유 기준 배럴당 18~20달러선에서 유지되는 것이 석유시장 안정화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 폭락은 석유수익 의존도가 큰 대부분의 산유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반면 지나친 유가 폭등은 소비국들의 소비 위축 및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원중 석유 자체의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유가 강세 기조가 어느 정도 계속되다가 이후에는 OPEC의 전략에 힘입어 Brent유 기준 배럴당 18달러 내지 20달러 선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에서 추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대처 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유가 강세 기조가
어느 정도 계속되다가
이후에는 Brent유 기준
배럴당 18달러 내지 20
달러 선의 비교적 안정
적인 수준에서 추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내년 하반기를 전후하여 유가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OPEC이 표방하고 있는 배럴당 18~20달러의 유가 수준은 과거 수준에 비해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며, 석유라는 재화의 특성상 하시라도 현재와 같은 유가 급등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금년과 같은 유가 급등장세를 접하고 보니 석유라는 재화의 특성을 새삼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세불안 및 민족·종교 분규 가능성이 큰 중동에 64%나 편중되어 매장되어 있고, 세계 전체 산유량의 40% 이상을 OPEC이 생산해내고 있는 점, 장기로 갈수록 중동 의존도가 높아갈 전망이다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어떤 재화보다도 제반 국제 정치·경제적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재화가 석유임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유가 변동에 흔들림없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측면에서 '석유'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소요 원유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그 중에서도 중동의존도가 무려 76%에 달하는 대소비국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와 같은 OPEC의 强盛을 보거나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중동 의존도가 심화될 전망임을 고려해 볼 때 언제라도 유가 급등, 나아가 중동 산유국들의 의지 여하에 따른 제3의 오일 쇼크 사태 또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만큼 무엇보다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석유공급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더없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대처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석유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러한 석유비축 및 해외 석유개발은 국제 유가의 단기적 변동에 따라 좌우되기보다는 장기적 계획하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향후 꾸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는 물론 경제성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석유개발 사업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 확대, 세제 지원제도의 정비, 민간부문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가 많지만 민관이 다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면 필요할 때 우리나라가 보유한 유전에서 직접 원유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제 3의 오일쇼크조차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무엇보다도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